

##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정신 배운다”



김이삭 학생은 2015년 정담회 회장을 맡았다

김이삭(건국대 물리학부3)


저는 2015년에 아산장학생 모임인 정담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아산장학생이 된 지 2년째인데, 그동안 장학생으로서 고민하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장학생이예요”라고 말하면 “공부 잘 하는구나”, “등록금 걱정 없어 좋겠다”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반응은 좋은 성적에 대한 일종의 보상, 또는 특혜로서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는 장학생에 대한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게 장학생은 조금 다른 의미로 와 닿습니다. 아산장학생으로 지내면서, 특히 정담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장학생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결론은, 장학금은 임금 같은 노동의 대가나 복권 당첨금 같은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학금은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누군가가 모은 사회적 기금이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생이 도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곱씹다 보면, 도움을 되갚아야겠다는 더 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장학금을 받고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덕’이라거나 ‘생각지도 않은 공돈’이라는 생각에 그친다면 그건 노동이나 운으로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만 기뻐할 뿐 사회에 환원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착한 부담감’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장학생이 갖는 더 큰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가 돕고 돕는, 선순환의 특별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장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개인적인 모습보다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사는 모습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서 다른 사람을 돕고, 도움 받은 사람은 다시 다른 이를 돕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도움을 받은 장학생은 이 선순환의 고리를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가능성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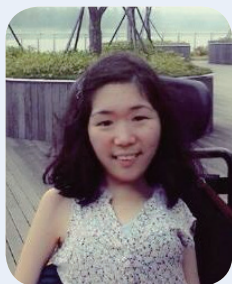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제가 아산장학생이 된 뒤 배운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아산재단에서 장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권장하는 모습이나, 정담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할 곳을 찾아다니는 모습에는 이미 이런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정담회 회장을 하면서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것 또한 이런 정신입니다.

저는 모든 장학생들과 이런 생각을 나누고, 장학생들의 사회환원 문화를 정착시키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제 소망을 응원하신다면 누군가가 “나는 장학생이야”라고 말할 때 “넌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고 있지?”라고 물어봐 주세요. 장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말에 담긴 엄숙한 의미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지난 3월 21일 경기도 안성 신생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정담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 끝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윤하 부회장, 채희진 총무부장, 김이삭 회장, 김태환 운영부장, 장진우 봉사부장, 김대근 편집부장, 이다영 기획부장

## “재활심리학자 위한 자신감 선물받았다”



지체장애1급인 원지선  
학생은 ‘재활심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

원지선(서강대 심리학과4)

어릴 때부터 병원 치료비 등 저와 관련된 부담을 부모님께서 너무 많이 지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매학기 나름의 방법으로 학비를 조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서, 또 신체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학비를 마련 마련하는 것이 여러 모로 힘겨워 한창 지쳐있던 시점에 학교 교직원을 통해 아산장학생으로 추천받았습니다.

큰 기대 없이 지원했는데 최종 선발되었을 뿐 아니라 대표 장학생으로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신기하다는 느낌과 큰 자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학비를 마련했다는 안도감만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아산재단은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산재단이 제공해준 이러한 자부심은 제가 앞으로 ‘재활심리학자’의 길을 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 같은 장애학생을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상담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러한 제 꿈에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현재 심리학과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상담 실습과 이론 공부를 통해 장애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장애학생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심리 지원과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포함된 지체장애우뿐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진 다양한 장애우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봉사를 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재외국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을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봉사는 사정이 더 나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줄 수 있는 도움뿐 아니라, 봉사활동 대상자를 통해 배우게 될 인생수업이 기대됩니다.

아산재단을 통해 올해만 해도 1,754명의 학생들이 모두 50억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산재단의 장학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아산장학생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아산재단의 설립취지는 나날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회에 진출한 아산장학생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살기 좋은 세상’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



지난 2월 26일 오후 아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에 앞서 열린 대표 장학생 간담회에서 장정자(오른쪽) 아산재단 이사가 휠체어에 앉은 원지선 학생과 눈을 맞추며 지선 학생의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